언어영역 난이도 높은 2·3점짜리 문항 대비해야

■연합학력평가로 본 2008년 수능 출제 경향

고교생의 학력 진단과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올 들어 처음 실시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구성과 유형이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고 대체로 평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 등급제에 맞춰 언어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2·3점짜리 문항이 늘어나는 등 고난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어영역=교육인적자원부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수능보다 10문항이 축소된 50문항으로 구성된 첫 시험이었다. 문항 수 축소에 따라 시험 시간도 기존의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단축됐다.

비문학 6지문 21문항, 문학 4지문 17문항으로 2007년 수능의 60문항 체제(비문학 6지문 25문항, 문학 4지문 21문항)와 비교했을 때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됐다. 배점 면에서도 비문학은 41점, 문학은 35점으로 2007년 수능(비문학 39점, 문학 35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문학 부문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문학 부문은 대체로 낯선 작품을 선정하고, 고전 수필과 고전 시가, 현대 시조를 장르 복합 지문으로 구성했다.

어휘·어법의 비중은 약간 줄었다. 2007년 수능에서는 10문항 13점이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5문항 9점으로 비중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이 어휘·어법 문항에 취약한 편이므로 여기에 비중을 두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수능을 9등급제로 할 경우 수능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각 등급별 경계선에서 1, 2점이 모자라 한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어휘·어법 문항을 맞혔느냐 틀렸느냐에 따라 언어 영역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차분하게 어휘·어법을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리 영역=대체로 평범한 문항으로 구성됐고, 고난도 문항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문항이 3문항 정도 출제됐다. 난이도를 살펴보면 가형과 나형 모두 2007년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가형의 경우 조건과 보기를 이용한 문항이 9문항이 출제돼 지난 2007년보다 2문항이 늘었다.

수리영역 조건·보기 이용한 문제 2문항 늘어

외국어영역 어휘·구문 수준 작년보다 어려워져

2008년 수능 등급제에 맞춰 앞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도 고난도 문항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항이 3~4문항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상시 고난도 문항을 많이 연습하게 되면 응용 능력이 많이 길러지므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어 영역=문제유형 면에서 2007년 수능과 동일하고 새로운 유형도 출제되지 않았으나, 어휘 및 구문의 수준이 2007년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됐다. 듣기 문제의 경우 새로운 소재가 많이 출제됐고, 정확하게 대화 및 담화의 내용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읽기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된 어휘와 구문의 수준을 가늠하고,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통해 어휘 및 구문의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 추론적, 종합적 사고력 또한 어휘와 구문 파악 능력이 선행돼야 가능한 것이다. 어휘를 공부할 때는 다양한 의미와 파생어를 함께 암기해야 하며, 반드시 예문을 통해 익혀 나가야 한다. 구문 파악 능력은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문장 단위로 분류한 뒤 각 문장에서 사용된 구문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익혀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항을 70분 안에 풀도록 되어 있다. 듣고 푸는 문제는 20분 내외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읽고 푸는 문제 33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읽고 푸는 문제는 한 문항당 1분 10초 안에 풀어야 재검 시간과 정답 작성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도움말 :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일보사·조선대 공동 교양강좌 '시장경제의 이해' 개설

저명한 경제학자·CEO들 명강의 실물경제 위주 학습 '머리에 쏙쏙'

대학생 기업 마인드 키워

광주일보사가 조선대 MCB(중국시장진출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전의천 무역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학생들의 친기업마인드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위한 교양강좌 '시장경제의 이해'를 개설·운영 중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한국 경제 현황 및 시장경제 기본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나라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강좌는 (재)자유기업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CEO들이 강의를 맡으며, 수강생 스스로 학습하고 느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팀 단위 교육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또 자유기업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기존의 경제학 관련 강좌와는 달리 이론적 접근을 배제하고 시장경제의 개념 및 기본 작동원리, 시장경제의 필요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정신, 시장의 세계화와 반독점정책, 정부의 역할 등 실물경제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수강생들은 대학시장경제강좌 커뮤니티(www.cfe.org)를 활용해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이용하고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006학년도 교육 우수교수로 선정된 10명의 교수들이 시상식이 끝난 후 강정채 전남대 총장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자윤·정난희·김은정·이현욱·박남용 교수, 강정채 총장, 송인성·정우남·김수형·김경민·이덕배 교수.

"교수님들, 참 잘 가르쳤습니다"

전남대, 우수교수 10명 선정 표창

전남대 교수 중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지난해 가장 잘 가르쳤다고 평가받은 교수는 누구일까.

전남대는 14일 최자윤(간호학과)·송인성(경제학부)·정우남(기계시스템공학부)·김수형(전자컴퓨터공학부)·김경민(전자통신전기공학부)·정난희(가정교육과)·이현욱(지리학과)·김은정(의류학과)·박남용(수의학과)·이덕배(일어일문학과) 교수 등 10명의 교수를 '2006학년도 교육 우수교수'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 200만원씩을 수여했다.

교육 우수교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와 교과목 관련 자료, 학생들과의 교신 자료,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 학사 지도 자료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됐다.

전남대는 또 산업공학과·간호학과·생물학과·경제학부·독일언어문학과·가정교육과·신문방송학과·사학과 등 8개 학과를 교육 우수학부로 선정해 상패와 50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했다. 교육 우수학과는 평균 강의평가점수 상위 학과 가운데 교육 개선 노력, 정규 교과목 외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학사 지도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국학 칼럼 ■

고조선 역사 복원은 민족정신의 광복

이 승 헌

지난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는 '제3회 으랏차차 코리아 - 고조선 역사부활 국민대축제'가 전국에서 1만 명의 국학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고교 국사교과서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한 국민적인 화답이었다. 국민들은 '신화에서 역사로 고조선이 복원되었다'는 언론보도만으로는 역사복원의 기쁨과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다.

이번 국사교과서 개정으로,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지 6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민족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사관으로 빼앗긴 2천여 년을 신화에서 역사로 되찾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다.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정신과 문화를 가졌던 고조선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다.

공동대회장의 자격으로 그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20여 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985년, 서울시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단군성전을 사직단과 함께 확장, 개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오랜 역사와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계획은 곧 일부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로 취소되고 말았다. 당시 30대의 청년이었던 필자는 이 민족의 정신과 역사의 복원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2년 뒤인 1987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안호상 박사를 만났다. 안호상 박사는 미수(米壽)의 나이에도 단군과 민족정신에 대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뜻이 맞아 안호상 박사를 대회장으로 모시고, 집행위원장을 맡아 '민족정신 광복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고,'국조 단군 숭봉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대회에서 '국조 단군은 민족과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으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이루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정신지도국이 되자'고 천명했다.

> "빼앗긴 국토 되찾으면 되지만 國魂 잃으면 모든 것 잃는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8년, 음력 개천절 기념행사에서 안호상 박사는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 건립운동'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듬해 2월에 한 세기 민족정신운동에 바쳐온 생을 마감하셨다. 2004년 천안 흑성산 독립기념관 뒤편에 민족 교육의 전당인 '국학원(國學院)'을 개원했을 때도 안 박사 생각이 간절했었다. 오늘의 고조선 역사 복원 소식을 들으시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번 행사에서는 김국주 광복회장을 비롯한 민족단체 대표 33명이 모여, 고조선 역사복원을 경축하는 국민대축제를 개최한 3월 11일을 '민족정신광복 기념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매년 이 날에는 국민적인 대회를 열기로 했다. 외국에서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스카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평화대학 이사장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단군과 고조선이 우리의 뿌리임을 거듭 강조하신 이수성 공동대회장의 말씀처럼, 고조선의 역사와 단군의 정신은 우리의 국혼(國魂)이다.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은 국토는 빼앗기면 되찾으면 되지만, 국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분노하며 보낼 시간이 없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면 된다. 꿈과 비전이 있는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이다.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국학원 설립자〉